

친밀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유지되어, 실습현장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분석, 수정보완을 통한 방사선교육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의 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다단계 추출방법(multi-stage probability sampling method)으로 전국 10개 대학 방사선과에 재학중인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된 250명을 설문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였다.

측정변수는 크게 임상실습의 형태 및 만족도와 문제점 및 평가로 나누었고, 임상실습의 형태는 조사대상 학생들의 기본적, 일반적 특성 그리고 임상실습의 만족도로 분류하여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임상실습의 문제점 및 평가를 임상실습장인 병원과 대학의 현실성을 고려한 입장에서 조사하였다.

**결 과 :**

성별은 남자가 73.6%, 연령은 24세 이상이 60.4%, 출신고는 80.4%가 인문계열, 학과선택 등기는 취업률 높은 것이 23.6%로 가장 높았다. 학과 결정에 대한 만족감은 조사대상 학생들이 약 30%만이 만족하였고, 실습 병원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이 98.4%, 실습시기는 3학년 2학기중이 76.8%, 대부분 8주간 연속적인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형태는 견학과 실습을 겸한 방식이 71.6%, "실습 전담 방사선사의 유무에 대한 응답과 실습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었는가?"라는 설문에서 61.6%는 전담방사선사가 있었고, "실습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50 : 50의 비율로 나타났다. "실습의 미흡한 분야가 있다"가 75.6%, 실습내용의 만족도로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였다"는 91.2%, 실습환경에 대한 "실습 분위기가 적합하였다"는 70.4%, "임상실습 장소와 학생 수는 적절하였다"는 53.2%, "장치나 시설 등은 충분하다"는 60%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으로 "방사선사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유익하였다"는 78% "타 대학 실습학생들과는 정보 교환 및 동료로서 매우 좋았다"는 6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는 학생 임상실습 문제점 및 평가를 간접적이지만,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상실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되어 방사선사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정하에 산학협동체제가 제도화되어야만 하고, 대학과 병원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사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여진동\*, 오문영

**목 적 :**

진단방사선의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원고 방사선사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이 많아지며 각종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술의 급격한 향상과 분야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설과 의료장비의 질적 양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선사들의 기술 및 근무여건의 향상과 효율적인 방사선 진료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상 :** 부산시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진단부분 방사선사 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자는 175(회수율 87.5%)이었고, 응답이 불충분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171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방법 :**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결 론**

1. 방사선사수의 만족도는 22.3%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사 1인 1일 근무시 평균 촬영건수가 101~150건이 29.2%로 가장 많았고, 1인당 1일 적정 촬영 건수는 51~80건(34.5%)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의원에서는 31~50건(58.8%)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2. 방사선사의 1인당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 전체의 62.5%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관 별로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병원 85.0%, 의원 41.2%).
3. 교대근무에 관하여 전체 63.7%가 주간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근무에 관한 선호도는 주간근무가 63.7%로 나타나 대부분 주간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간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55.9%, 50대 이상 100.0%).
4. 1일 2교대 3교대 연장근무 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다가 78.9%로 나타나 대체로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당을 받을 경우 79.3%가 적당도 응답하였으며, 교대근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불만이 전체 76.6%로 나타나 교대근무를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관별로 차이가 없었다.

**8) 재진 필름 분석은 필요한가?**

단국대학교의료원  
김석태\*, 송준호

**목 적 :**

최근 의료사회에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한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방사선사들도 진단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 실패 요인으로 인하여 관리비용의 낭비와 환자에 대한 기본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및 신뢰감 상실 등 병원 경영상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본 분석을 통해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대상 및 방법 :**

- 1) 대상 : 단국대학교의료원 진단방사선과
- 2) 기간 : 1995년 7월 ~ 1999년 6월(4년)
- 3)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 전체평가
- 4) 평가자 : 책임방사선사, 기사장